주히로시마 총영사관

❑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소식지 배포로 동포안전과 한국홍보에 기여

○ 주히로시마총영사관은 동포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기 위해 2년여에 걸쳐 14,509명에 이르는 재일동포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직접 연락

- 그 결과 이 중 26%인 재일동포 3,633명의 안부를 확인하였으며, 이를 통해 동포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위기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

○ 또한 '11년부터 「Monthly Newsletter」를 발간, 주재국 및 동포 주요인사 3,500여명에게 배포하여 공관 주요 활동, 한국 문화 등을 소개 중

- 이러한 활동은 주재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포들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